

‘계란 대란’ 추석 대비 9월까지 2억개 수입한다

정부 ‘계란가격 안전방안’ 발표 물량 절반 대형마트에 공급 aT, 수입란 한 판 1000원 인하 광주 소매가 8개월째 7000원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대비해 정부가 한 판에 7000원대인 달걀 가격을 6000원대로 끌어내리기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달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수입하는 신선란은 총 3억개에 달한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관계 당국은 지난 6일 ‘제2차

물가관계자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란 가격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수입 달걀 물량을 1억개, 다음달 1억개 등으로 대폭 늘린다. aT는 지난 설 이전 물가 안정을 위해 미국산 신선란 101만개를 들여오기 시작했다. 당시 시중에서는 한 판(30개) 4450원 가격에 판매됐다. 이후 4월 4000만개, 6월 8000만개 등 수입량을 늘려왔다. 지난달에는 예정된 물량 5000만개에 5000만개를 추가, 한 달 동안만 1억개의 달걀을 미국에서 들여와 판매했다. 지난달 기준 미국에서 수입된 신선란은 총 2억7000만개에 달한다. aT는 지난 5일부터 수입 달걀 공급 가격(30개 1판 기준)을 기존 4000원에서 3000원으로 1000원 인하했다. 수입 물량의 절반 이상은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종전까지 수입 달걀은 급식업체나 가공업체에 주로 공급됐는데,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직접 수입 달걀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류 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입은 양계 농가들은 오는 10월까지 무이자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가 오는 10월까지 양계 농가에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를 현행 1.8%에서 0%로 낮추면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에 최대 10억원 한도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인데, AI 피해 농가에는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총 지원 규모도 기존 15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앞선 산란계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지

급도 신속히 마무리한다. 정부는 또 달걀 가격 안정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기재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합동점검반은 총괄반·생산점검반·유통점검반·판매점검반으로 구성되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이 총괄 반장을 맡아 달걀의 생산·유통·판매 전 단계를 종합 점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위법·부당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지원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한편 정부는 6월 말 기준 산란계 수가 약 6800만 마리로 추정돼 평균 수준(6916만 마리)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달걀 가격(30개 1판 기준)도 지난 2월 7821원으로 고점을 찍은 후 이날 7140원을 기록하며 완만히 하락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aT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광주 양동시장에서 팔리는 달걀(특란) 30개 소매가는 올해 초(1월4일) 54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4300원)보다 25.6%(1100원) 뛰었다. 이숙고 같은 달 18일에는 6000원, 28일에는 7000원을 넘기며 가파른 상승을 기록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2월3일에는 전년보다 69.8%(2930원) 급등한 7130원에 팔렸으며, ‘달걀 한 판 7000원’은 8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지난 6일 기준 달걀 한 판은 전년보다 0.9%(-70원) 내린 7660원에 판매됐다. 하지만 전년(4000원)에 비하면 2배 가까이(91.5% ↑) 높은 수준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담양농협 로컬푸드 매장 ‘친환경 포장재’ 주목

담양농협이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하나로마트 & 로컬푸드 매장에서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등 환경친화 경영(ESG)을 펼치고 있다. 담양농협은 지난 5월부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일반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로컬 포장재’를 도입해 사용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우선 담양농협 로컬푸드 출하회에 가입한 농가가 생산한 상품을 ‘친환경 로컬 포장재’를 활용해 개별 포장·판매하고 있다. 매장에서 고객이 물건을 구매할 때 담양갈 수 있는 소평봉투 역시 비닐봉투나 종량제봉투 대신, 크기별 30원~100원대의 친환경 봉투로 제공한다. 담양농협에서 사용하는 ‘친환경 로컬 포장재’는 식물원료를 사용해 비닐류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또 소평봉투로 제작된 제품은 생분해성 수지로 만들어져 폐기 후 180일이면 스스로 분해된다. 관광객 방문이 많은 담양지역 특성상 종량제봉투보다 일반 봉투를 선호한다는 점과 여름철 무더위 쓰레기 배출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친환경 포장재 판매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효과는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담양농협은 환경친화 경영활동을 위해 앞으로 하나로마트와 자체 포장 상품에도 친환경 포장재 사용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김법진 담양농협 조합장은 “친환경 농산물 포장에 왜 친환경 포장재로 하지 않는가?”로 시작된 변화가 지역의 소비문화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며



담양농협 로컬푸드를 방문한 고객이 친환경 포장재에 상품을 담아 들어보이고 있다.

“환경오염 문제 해결과 친환경 농가의 이익증대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영암농협·영암축협 농협 총화상 수상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농협 창립 60주년을 맞아 농협 표창 가운데 최고 권위 상인 총화상을 비롯해 다수의 상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총화상은 영암농협(조합장 박도상)과 영암축협

(조합장 이맹중)이 수상했다. 농협 전남본부 소속 농협이 수상한 건 2019년 산호농협과 지난해 목포농협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이다. 올해 전남에서는 그중 2개 사무소가 수상

의 영예를 안았다. 개인 시상인 우수 직원상은 신여수지점 박유하·황룡농협 신범식 과장보, 옥과농협 박종삼·해남농협 김형근·함평축협 장훈·목포원협 최송화 과장대리가 각각 수상했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농업인 조합원에 대한 봉사과 지역사회 기여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취약계층 ‘코로나 예방물품 꾸러미’ 전달

농협 광주지역본부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5일 광주지역 취약계층 농업인 300여 명에 ‘코로나19 예방물품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본부는 이날 동곡농협에서 전달식을 진행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이번 물품이 마련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로나19 예방물품 꾸러미’는 비말차단 마스크, 손소독제, 손세정제, 향균비누 등으로 구성됐다. 강형구 광주본부장은 “코로나19 델타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농업인의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과수·시설채소 폭염피해 예방 현장 점검

농협 전남지역본부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5일 전남지역 주요 과수·시설채소 산지를 대상으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현장점검(시진)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사과 등 과수작물은 햇볕 데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농가에서는 탄산칼슘을 살포하고 미세살수 장치를 통해 과실 표면온도를 낮추는 등 예방 활동을 펼쳤다. 과수작물의 햇볕 데임 피해는 35도 이상 고온이 7일 이상 지속될 경우 주로 발생한다. 전남농협은 미세살수 장치를 이용한 과면온도를

낮추는 방법 등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실이 직사광선에 오랫동안 노출되지 않도록 과도한 적염은 피해야 한다. 탄산칼슘을 섞은 용액을 남쪽과 서쪽에 있는 과실 위주로 10여 일 간격으로 4~5회 잎 표면에 뿌리는 것도 좋다. 박서홍 본부장은 “전남농협은 폭염 대응 등 급변하는 기상상황에 대비해 농산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예찰 활동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투자 가치 100% 확신! 강력추천!

서구 쌍촌동 (한국병원 부근)

- 대 지 : 2,700 m²
- 건 물 : 3,704 m²
-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2층 주차장 기계실

매도가격 협의

감정가 5,920,417,660원

상담 010-3733-3933